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미시체계 변수에 따른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 분석*

이 연 희** · 황 순 영***

An analysis of Emotional Contagion and the level of Empathy Based on the Microsystem Variables of Children at Risk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Lee, Yeon-hee** · Hwang, Soon-young***

요약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을 미시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방법]** 이에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기도의 28개 초등학교, 5개 복지관에서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 306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미시체계 변수 관련 문항과 정서전염과 공감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아동의 미시체계와 정서전염, 공감척도에 관한 자료는 기술통계분석과 독립표본 t-test,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은 일반아동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인 특성 변수에서는 학업성취도와 성별, 가정환경 변수에서는 부직업, 모직업, 가정분위기, 가족형태, 학교환경 변수에서는 교사연령, 단짝 친구 성별, 친구와의 활동정도, 친구 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결론]** 따라서 주로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 개인의 정서적 중재 위주로 제공되었던 기존 지원들이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 주변의 미시체계로 그 관심을 확장시켜 아동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서지원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 미시체계, 정서전염, 공감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to support children at risk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through an analysis of emotional contagion and the level of empathy based on the microsystem variables of children at risk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Method]** Accordingly, 28 elementary schools and five welfare centers in Busan, South Gyeongsang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and Gyeonggi Province surveyed 306 children at risk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and distributed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children's microsystem variables, emotional infection and the level of empathy. The data on the collected microsystems, emotional contagion, and the level of empathy were performed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one-way ANOVA analyses.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emotional contagion and the level of empathy of children at risk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are usually higher than normal. In addition, I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variables, there were group differences in academic performance, gender, and home environment variables in fathers' jobs, mothers' jobs, family atmosphere, family types, and school environment variables in terms of teacher age, close friend sex, and number. **[Conclusion]** Therefore, existing support measures that were primarily concerned with emotional support for children at risk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should be expanded to microsystems around children at risk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and should explore specific and broad emotional support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hildren.

Key Words : Children at risk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 Emotional contagion, Microsystem, Empathy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강사
Lecturer, Dept. of Speci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special-hsy@pusan.ac.kr)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

서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생 정서·행동발달특성검사’를 실시하여 정서·행동 상의 문제를 가진 학생을 선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심군’, ‘주의군’으로 분류된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 및 청소년들은 정서·행동장애의 예방 및 조기 중재 차원에서 여러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현장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 및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정서·행동 상의 문제를 가진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조기 선별, 진단, 평가, 개별화교육 등에 있어서 가장 낮은 지원을 받고 있다[66, 74]. 전체 학령기 아동의 10-20% 정도가 정서·행동 상의 문제 가진 정서·행동장애 위험군으로 보고되어 있지만 이들 중 약 20% 정도만이 적절한 개별적 지원이나 교육적 중재, 정서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정서·행동 상의 여러 문제는 조기에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청소년기 일탈이나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후 성인기 반사회적 인격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20, 83]. 이러한 맥락에서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 상의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지원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은 정서·행동장애의 주요 특성이 되는 신체증상, 우울, 불안, 공격성, 사고의 문제 등을 보이고 있으나 정서·행동장애로 분류되지 않은 아동을 말한다[46]. 이들도 정서·행동장애 아동과 마찬가지로 내재화 및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아동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피드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아동의 문제행동이 외부로 표출되는 양상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감정 조절의 어려움, 자신과 타인의 감정 인식 및 소통의 미숙함 등의 정서적 특징이 문제행동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이는 또한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며 정서적 취약함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25].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인 ‘공감’과 공감을 촉발시킬 수 있는 정서적 기제인 ‘정서전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감(empathy)’은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잘 이해해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표현함으로써 타인과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4, 15, 19, 80].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공감은 공격성과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높은 데[51, 56], 공감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사회적 자신감, 조절능력, 융통성 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6, 72]. 또한 공감은 불안, 우울과 같은 내현화된 행동문제와도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85], 분노, 폭력, 반항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완화시켜주는 주요기제로 보고되었다[34, 81]

한편, ‘정서전염(emotional contagion)’은 타인의 정서를 보면 그와 비슷한 정서를 느끼는 경향성을 말한다[27, 58].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서전염은 자주 경험되는데 타인과 이야기를 할 때, 상대의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태도 등을 자연스럽게 모방함으로써 상대방의 정서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것을 정서전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서전염은 타인의 얼굴 표정이나 태도 등과 같은 비구어적 제스처를 인식하는 것으로, 타인의 정서에 적절하게 공감하며 상호작용하게 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54, 82]. 하지만 정서전염과 공감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정의하기는 어렵다[29, 52].

공감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정서를 공유해서 감정을 나누는 능력인 정서적 공감과 타인의 생각, 바람, 믿음, 의도, 인식 등을 유추하는 인지적 공감으로 구분되고 있는데[5, 81], 이러한 맥락에서 타인의 정서 및 감정에 대한 공유 반응인 정서적 공감과 정서전염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정서전염은 공감의 처음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른 사람의 얼굴표정, 자세, 움직임 등을 자동적으로 모방하여 비슷한 정서를 느끼게 해 주는 기제[27, 58]로서 정서적 공감의 촉발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서전염은 타인의 정서와 표정을 모방함으로써 타인의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누적된 정서적 경험은 공감능력을 높여준다. 즉, 정서전염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대화과정에 잘 집중하게 되어 상대의 정서에 쉽게 동화되며 공감적인 태도를 적절하게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16, 53]. 따라서 정서전염과 공감의 하위 영역별 수준을 분석을 통해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정서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정서전염과 공감의 높은 관련성은 영유아기의 일상적 경험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제스처를 모방하면서 표정을 포함한 비구어적인 제스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지속되면서 공감능력을 발달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다[63]. 이처럼 정서전염과 공감은 주변 사람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타인의 기분이나 경험, 느낌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12], 특히 친밀한 주변 사람들이나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정서전염과 공감은 긍정적으로 발달된다[13, 18, 58].

지금까지 살펴본 공감과 정서전염의 특성에 따라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공감과 정서전염을 분석함에 있어 생태학적 관점[8]을 통한 이해 및 접근은 의미있게 여겨진다.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아동의 문제를 아동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접근하게 된다[40]. 또한 생태학적 관점에 따르면 아동 개인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환경인 미시체계는 아동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아동의 정서적인 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아동의 정서적인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미시체계에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가정환경, 친구,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학교환경 등이 포함된다.

미시체계에 속하는 부모 및 가정환경에서는 부모의 직업과 학력, 연령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배경[1, 23, 40, 60, 87]과 가정의 소득수준, 가족분위기, 가족 형태, 형제 수[1, 23, 36, 40, 64]등이 아동의 정서적인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정환경 변수라 보고되었다. 또 다른 미시체계의 중요한 환경인 학교환경 살펴보면, 아동의 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친구와 교사를 들 수 있다[46]. 정서전염과 공감은 자주 만나

친밀해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로 발견되는 정서적 기제이므로 친구와 교사는 정서전염과 공감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13, 56]. 또한 일반적으로 연령, 성별이 공감과 정서전염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친구와 교사의 연령과 성별, 아동의 친구 수[59]와 친구와의 활동정도[89] 등이 주요한 학교환경 변수가 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정서적인 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77], 행동특성[47], 학업성취[62, 65], 출생순위[87] 등이 주요한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서전염과 공감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정서전염[17]과 공감[1, 35, 71, 90] 수준이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전체 정서전염과 공감의 하위영역별 수준을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살펴본 후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개인적 특성 변수에 해당하는 성별, 연령, 행동특성, 학업성취, 출생순위와 가정환경 변수로는 부모의 직업과 학력, 연령과 가정의 소득수준, 가족분위기, 가족 형태, 형제 수 등에 따른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친구와 교사의 연령과 성별, 친구 수, 친구와의 활동정도를 친구와 교사 관련된 학교환경 변수로 하여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전체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과 미시체계 변수에 따른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을 분석해 봄으로써,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정서전염과 공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개인 및 미시체계 환경을 잘 고려한 공감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정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방적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전체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과 미시체계 변수에 따른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첫째,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정서전염과 공감수준은 일반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미시체계 변수에 따른 정서전염과 공감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과 미시체계 변수에 따른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기도의 28개 초등학교, 5개 복지관에서 사례관리 되고 있는 초등학교 1-6학년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 3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정서·행동장애의 주요 특성인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 행동이나 감정표현의 어려움,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 공포감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아동과 지역사회 중심의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으로 분류된 아동들 중 정서·행동장애의 특성을 보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집된 아동들 중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을 최종 표집하기 위해 K-CBCL검사(주양육자 보고형, 40분 소요)를 실시하여,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 영역의 T점수가 60점(84% tile) 이상을 나타내고, 그 부모가 설문조사에 동의한 아동을 최종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정서전염과 공감수준을 일반 아동과 비교해 분석하기 위하여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한 교사의 보고가 없고 그 부모가 설문조사에 동의한 일반아동 306명의 정서전염과 공감수준도 수집하였다. 아동들이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특성은 <표 2-1>과 같다. 본 연구의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Table 2-1> Common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t risk of emotional behavioral disorder
<표 2-1>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 (N=306)

Character	division	n	%	Character	division	n	%
gender	male	195	63.7	age	8	37	12.1
	female	111	36.3		9	32	10.5
birth order	only child	44	14.4		10	74	24.2
	first child	110	35.5		11	55	18.0
	second child	127	41.5		12	56	18.3
	more than third child	25	8.1	13	52	17.0	
problem behavior type	internalization	108	35.3	learning achievement	poor	32	10.5
	externalization	119	38.9		less than average	42	13.7
type	overlap	79	25.8		average	111	36.3
					more than average	76	24.8
				good job	45	14.7	

본 연구에 참여한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가정환경 특성은 <표 2-2>와 같다.

<Table 2-2> Characteristics of family environment in children at risk of emotional behavioral disorder
 <표 2-2>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가정환경 특성 (N=306)

Character	division	n	%	Character	division	n	%	
father age	non-response	15	4.9	father education	non-response	15	4.9	
	less than 35	5	1.6		less than high school	113	36.9	
	36-40	56	18.3		final college	46	15.0	
	41-45	129	42.2		university	120	39.2	
	46-50	77	25.2		more than a graduate	12	3.9	
	more than 51	24	7.8		mother final education	non-response	5	1.6
	mother age	non-response	5			1.6	less than high school	131
less than 35		21	6.9	college		67	21.9	
36-40		111	36.3	university		95	31.0	
41-45		113	36.9	more than a graduate		8	2.6	
46-50		47	15.4	family atmosphere	discord	18	5.9	
more than 51		9	2.9		ordinary	125	40.8	
father job	non-response	15	4.9		harmony	163	53.3	
	a day worker	27	8.8	monthly income level	less than 2 million	56	18.3	
	a business worker	67	21.9		200-300	75	24.5	
	self-employed	70	22.9		300-400	64	20.9	
	office & technical work	68	22.2		400-500	52	17.0	
	management & quasi-professionalism	32	10.5		more than 5 million	59	19.3	
professional & senior management	19	6.2	mother job		non-response	5	1.6	
not employed	8	2.6		a day worker	12	3.9		
family type	big-size	22		7.2	a business worker	40	13.1	
	small-size	236		77.1	self-employed	30	9.8	
	single-parent family	38		12.4	office & technical work	23	7.5	
	grandparents' family	10		3.2	management & quasi-professionalism	16	5.2	
	number of children	1		44	14.4	professional & senior management	28	9.2
2		181		59.2	not employed	152	49.6	
3		75	24.5	father job	non-response	15	4.9	
more than 4		6	1.9		a day worker	27	8.8	
mother job	non-response	15	4.9		a business worker	67	21.9	
	a day worker	27	8.8		self-employed	70	22.9	
	a business worker	67	21.9	office & technical work	68	22.2		
	self-employed	70	22.9	management & quasi-professionalism	32	10.5		
monthly income level	office & technical work	68	22.2	professional & senior management	19	6.2		
	less than 2 million	56	18.3	not employed	8	2.6		
	200-300	75	24.5	family type	big-size	22	7.2	
	300-400	64	20.9		small-size	236	77.1	
	400-500	52	17.0		single-parent family	38	12.4	
more than 5 million	59	19.3	grandparents' family		10	3.2		
number of children	1	44	14.4		number of children	1	44	14.4
	2	181	59.2	2		181	59.2	
	3	75	24.5	3		75	24.5	
	more than 4	6	1.9	more than 4		6	1.9	

본 연구에 참여한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학교환경 특성은 <표 2-3>과 같다.

<Table 2-3> Characteristics of school environment in children at risk of emotional behavioral disorder

<표 2-3>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학교환경 특성 (N=306)

Character	division	n	%	Character	division	n	%
teacher gender	male	50	16.3	best friend gender	male	157	51.3
	female	256	83.7		female	149	48.7
teacher age	less than 30	64	20.9	number of friend	0	7	2.3
	31-40	96	31.4		1	56	18.3
	41-50	113	36.9		2	39	12.7
	more than 51	33	10.8		3	36	11.8
degree of activity with friends	do not	18	5.9		4	31	10.1
	sometimes	88	28.8		5	39	12.7
	1-2/week	62	20.3	more than 6	98	32.1	
	3-4/week	78	25.1				
	everyday	61	19.9				

측정도구

정서전염 척도

본 연구에서는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전염 수준을 알아보고자 'The Emotional Contagion Scale'[16]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랑(3문항), 행복(3문항), 두려움(3문항), 분노(3문항), 슬픔(3문항)의 5개 하위영역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 문항의 변안 및 수정 작업에 영어전공 박사 1명과 특수교육학 박사 1명,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였다. 또한 이 측정도구는 감정이나 느낌에 관한 문항이므로 특수교육학 박사수료 3명, 특수교사 3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아동이 반응하기 적합한 문항인지 토론을 통해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내용 확인 절차를 거친 문항들에 대해 문항 이해, 내용 및 문화적 타당도 등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재수정 하였다. 이러한 변안 과정을 거치고 수정·보완된 본 측정도구는 다시 특수교육 전공 교수 1인이 최종 검토하여 더 이상 수정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뒤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도구의 내용은 다음 <표 2-4>와 같다.

<Table 2-4> Emontional contagion scale sub-area questionnaires and questionnaires

<표 2-4> 정서전염 척도 하위영역별 문항과 문항수

sub-area	question number	item number	child Cronbach's α	adult Cronbach's α
love	6, 9, 12	3	.85	.84
happiness	2, 3, 11	3	.89	.75
fear	8, 13, 15	3	.65	.74
angry	5, 7, 10	3	.70	.59
sadness	1, 4, 14	5	.72	.78
all	15	15	.89	.90

아동용 공감 능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용 공감지수척도(EQ-C)[3]를 변안한 신뢰도, 타당도 및 요인분석을 거친 '자기보고형 한국어판 아동용 공감지수(EQ-C)'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정서적 공감(9문항), 인지적 공감(9문항), 사회기술적 공감(9문항)의 3개 하위영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공감 수준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측정도구가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공감 수준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문항 이해, 내용과 문화적 타당성 등을 알아보하고자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도구의 내용은 다음 <표 2-5>와 같다.

<Table 2-5> child's empathic ability scale sub-area questionnaires and questionnaires

<표 2-5> 아동용 공감능력 척도 하위영역별 문항과 문항수

sub-area	question number	item number	Cronbach's α
emotional empathy	1, 3*, 10, 15, 16, 19, 23, 24, 25	9	.85
cognitive empathy	2*, 4, 7*, 8, 13, 14, 17*, 21, 22	9	.71
social-technical empathy	5*, 6*, 9*, 11*, 12*, 18*, 20*, 26*, 27*	9	.85
all	27	27	.90

*reverse scoring question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선정기준에 충족되는 연구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방문이나 우편으로 설문지를 357부 배포하여 322부(90.2%)를 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여 통계처리가 불가능한 16부를 제외한 306부(85.71%)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과 미시체계 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초통계량(N, %)을 산출하였다.

둘째,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을 일반아동과의 비교하기 위해 기초통계량(N, %), 기술통계량(M, SD)을 산출한 이후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미시체계 변수에 따른 집단 간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t-검증과 ANOVA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차가 검증될 경우에는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내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정서전염과 공감수준 분석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정서전염 수준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과 일반 아동의 정서전염 수준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을 통하여 5개 하위 영역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과 비교할 때 일반아동의 정서전염 수준이 행복($t = -2.34, p < .05$), 두려움($t = -3.15, p < .01$), 분노($t = -2.97, p < .01$), 슬픔($t = -4.40, p < .001$)으로 나타나 사랑을 제외한 4개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일반 아동이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에 비해 사랑을 제외한 4개 하위 영역에서 정서전염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서전염 전체 수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과 비교할 때 일반아동의 정서전염 전체 수준($t = -4.29,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정서전염 하위영역별 수준은 사랑, 행복, 분노, 슬픔, 두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행동 장애 위험군 아동($M=3.31$)과 일반 아동($M=3.51$) 모두 정서전염 평균이 보통 수준 이상(2.5 이상 수준)의 정서전염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은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과 일반 아동의 정서전염의 수준 및 차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Table 3-1> emotional behavioral risk group and normal children emotional contagion level and differences

<표 3-1>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전염 수준 및 차이 (N=306)

emotional contagion	division	M	SD	t
love	risk group	3.93	1.05	-1.95
	common group	4.05	.91	
happiness	risk group	3.76	1.13	-2.34*
	common group	3.90	.96	
fear	risk group	2.89	1.00	-3.15**
	common group	3.12	.99	
angry	risk group	3.06	1.04	-2.97**
	common group	3.26	.99	
sadness	risk group	2.89	1.00	-4.40***
	common group	3.21	1.00	
all emotional contagion level	risk group	3.31	.83	-4.29***
	common group	3.51	.77	

* $p < .05$, ** $p < .01$, *** $p < .001$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공감 수준**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과 일반 아동의 공감 수준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을 통하여 3개 하위 영역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과 비교할 때 일반아동의 공감 수준이 정서적 공감($t = -3.17, p < .01$), 인지적 공감($t = -4.55, p < .001$), 사회기술적 공감($t = -3.78, p < .001$) 3개 하위 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일반 아동이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에 비해 공감 수준이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체 공감 수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과 비교할 때 일반아동의 전체 공감 수준($t = -4.65,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공감 하위영역별 수준은 사회기술적 공감,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행동 장애 위험군 아동($M=2.67$)과 일반 아동($M=2.81$) 모두 공감 하위 영역별 평균이 2.0을 보통수준으로 보았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공감 수준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2>는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과 일반 아동의 공감의 수준 및 차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Table 3-2> emotional behavioral risk group and normal children empathy level and differences

<표 3-2>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과 일반아동의 공감의 수준 및 차이 (N=306)

empathy sub-area	division	M	SD	t
emotional empathy	risk group	2.45	.64	-3.17**
	common group	2.57	.57	
cognitive empathy	risk group	2.62	.56	-4.55***
	common group	2.77	.50	
social-technical empathy	risk group	2.94	.67	-3.78***
	common group	3.10	.56	
all empathy level	risk group	2.67	.53	-4.65***
	common group	2.81	.45	

** $p < .01$, *** $p < .001$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미시체계 변수에 따른 정서전염과 공감수준 분석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미시체계 변수에 따른 정서전염 수준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정서전염 수준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정서전염 수준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 3-3>과 같다.

<Table 3-3> Emotional contagion level of children at risk of emotional behavior according to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표 3-3>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정서전염 수준 (N=306)

division	n	love		happiness		fear		angry		sadness		all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gender	male	195	3.93	1.00	3.66	1.12	2.80	1.01	3.00	1.01	2.78	.98	3.23	.78
	female	111	3.93	1.12	3.95	1.14	3.03	1.00	3.15	1.11	3.08	1.12	3.42	.88
	<i>t</i>		-.00		-2.17*		-1.87		-1.16		-2.43*		-1.96	
age	8 ^a	37	4.01	.91	3.51	1.13	2.83	.93	2.81	.87	2.64	1.11	3.16	.73
	9 ^b	32	3.88	1.12	3.65	.97	2.87	1.10	3.20	1.09	2.59	1.01	3.24	.80
	10 ^c	74	4.13	.97	3.96	1.12	2.83	1.07	2.94	1.02	2.81	.89	3.33	.77
	11 ^d	55	3.73	1.11	3.59	1.19	2.75	.94	2.99	1.18	2.82	1.15	3.18	.85
	12 ^e	56	3.97	1.03	3.90	1.21	3.14	1.05	3.27	1.15	3.18	1.04	3.49	.90
	13 ^f	52	3.76	1.13	3.78	1.06	2.87	.95	3.14	.97	3.11	1.02	3.33	.87
	<i>F</i> (Scheffé)		1.31		1.31		1.01		1.27		2.50* (e>f,d,c,b,a)		1.15	
birth order	only child	44	3.97	1.03	3.69	1.19	2.90	1.01	3.01	1.02	2.94	1.04	3.28	.90
	1 st	110	3.87	.91	3.68	1.03	2.88	1.03	3.03	.97	2.88	1.02	3.22	.89
	2 nd	127	4.00	.93	3.86	1.05	2.89	.94	3.08	1.06	2.85	1.02	3.34	.73
	3 rd	25	3.89	.95	3.87	1.09	2.68	1.12	2.89	1.16	2.99	.90	3.26	.80
	<i>F</i> (Scheffé)		.57		1.20		.59		.35		.21		.19	
behavior character	internalization ^a	108	4.00	.91	3.80	1.04	2.81	.96	2.98	1.05	2.97	1.01	3.31	.75
	externalization ^b	119	3.92	1.05	3.76	1.22	2.79	1.05	2.93	1.05	2.76	1.07	3.23	.86
	overlap ^c	79	3.84	1.20	3.70	1.11	3.13	.99	3.35	1.00	2.98	1.03	3.40	.88
	<i>F</i> (Scheffé)		.57		.19		3.11* (c>a>b)		4.27* (c>a,b)		1.56		.97	
learning achievement	poor ^a	32	3.01	1.47	2.93	1.28	2.61	.93	2.56	.96	2.32	1.04	2.69	.96
	less than average ^b	42	3.78	.94	3.59	.92	2.85	.92	3.22	.92	2.94	.97	3.27	.68
	average ^c	111	4.02	.90	3.87	1.05	2.99	.98	3.10	.99	2.95	1.00	3.39	.75
	more than average ^d	76	4.17	.86	4.05	1.07	3.04	.98	3.25	1.11	3.16	1.02	3.53	.75
	good job ^e	45	4.07	1.07	3.76	1.23	2.59	1.20	2.82	1.13	2.63	1.08	3.17	.91
	<i>F</i> (Scheffé)		8.60*** (b,e,c,b>a)		6.59*** (d,c,e,b>a)		2.37* (d>e)		3.37* (d>e>a)		4.67** (d>a)		7.03*** (d,c,b,e>a)	

p*<.05, *p*<.01, ****p*<.001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정서

전염 수준은 학업성취도에서만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7.03, p<.001). 즉, 잘함 집단의 정서전염 수준(M=3.17±.91)이 부진 집단의 수준(M=2.69±.96)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행동특성에 따른 전체 정서전염 수준에서는 집단 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정서전염의 하위영역인 두려움(F=3.11, p<.05)과 분노(F=4.27, p<.05)영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가정환경에 따른 정서전염 수준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가정환경 변수별 정서전염 수준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 3-4>와 같다.

<Table 3-4> Emotional contagion level of children at risk of emotional behavior according to their home environment

<표 3-4>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가정환경에 따른 정서전염 수준 (N=306)

division	n	love		happiness		fear		angry		sadness		all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father age (N=291)	less than 35	5	4.33	.78	4.00	.84	2.46	1.16	2.60	1.06	2.53	1.06	3.18	.67
	36-40	56	4.16	.98	3.98	1.04	2.76	.97	2.91	.99	2.93	.96	3.35	.68
	41-45	129	3.83	1.09	3.62	1.23	2.80	.99	3.04	1.04	2.85	1.08	3.23	.90
	46-50	77	3.97	.93	4.00	.92	3.14	1.02	3.30	.99	3.18	.97	3.52	.72
	more than 51	24	3.81	1.17	3.58	1.13	3.12	.95	3.13	1.01	2.75	.92	3.28	.85
	F(Scheffé)			1.24		2.10		2.27		1.68		1.72		1.63
mother age (N=301)	less than 35	21	3.52	1.40	3.52	1.14	2.76	1.01	2.93	.85	2.63	1.05	3.07	.94
	36-40	111	3.96	1.04	3.69	1.12	2.74	1.00	2.90	1.07	2.78	1.09	3.21	.82
	41-45	113	3.92	.98	3.84	1.05	2.93	.99	3.18	.98	2.99	.98	3.37	.78
	46-50	47	3.88	1.02	3.85	1.07	3.14	.92	3.15	1.13	3.03	1.01	3.41	.84
	more than 51	9	4.51	.76	3.51	1.43	2.96	1.45	3.07	1.29	2.88	1.22	3.39	1.02
	F(Scheffé)			1.57		.67		1.54		1.19		1.11		1.17
father job (N=291)	a day ^a	27	4.08	.98	3.85	1.05	2.98	.95	3.17	1.06	3.19	.87	3.45	.68
	a business ^b	67	3.95	1.14	3.76	1.16	2.63	1.05	2.79	1.09	2.66	1.09	3.16	.84
	self-employed ^c	70	4.11	.84	4.12	.89	3.37	.91	3.45	.86	3.22	.86	3.65	.69
	officer ^d	68	4.01	.78	3.78	.98	2.78	.93	3.07	.99	3.00	.96	3.33	.67
	management ^e	32	3.26	1.46	3.06	1.52	2.77	.99	2.83	1.06	2.54	1.22	2.89	1.09
	professional ^f	19	3.77	1.10	3.59	1.02	2.52	.95	2.87	.98	2.70	1.00	3.09	.80
	not employed ^g	8	4.33	.69	4.54	.68	3.41	.90	3.62	.80	3.54	.95	3.89	.57
F(Scheffé)			3.19** (g,c,a,d,b,f>e)		4.31*** (g,c,a,d,b,f>e)		4.76*** (g,c,a,d,e,b>f)		3.40** (g,c,a,d,f,e>b)		3.64** (g,c,a,d,f,b>e)		5.32*** (g,c,a,d,b,f>e)	
mother job (N=301)	a day ^a	12	3.36	1.33	3.27	1.27	2.83	.89	2.52	1.20	2.77	1.28	2.95	.90
	a business ^b	40	4.01	.84	3.93	.95	2.60	.97	2.77	1.01	2.50	.99	3.16	.67
	self-employed ^c	30	4.35	.68	4.51	.62	3.31	.98	3.47	.94	3.44	.91	3.82	.56
	officer ^d	23	3.76	1.07	3.52	1.30	3.07	.97	2.82	1.14	3.04	.86	3.24	.87
	management ^e	16	3.56	1.42	3.41	1.60	2.85	.91	2.83	.92	2.79	1.32	3.09	1.15
	professional ^f	28	4.11	.84	3.80	.86	3.03	.97	3.39	.89	3.19	1.09	3.50	.74
	not employed ^g	152	3.88	1.08	3.66	1.14	2.83	1.03	3.08	1.05	2.83	1.00	3.26	.83
	F(Scheffé)			2.12		3.49** (c,b,f,g,d,e>a)		1.77		2.70* (c,f>a)		3.00** (c,f,d,g,e,a>b)		3.17** (c,f,g,d,b,e>a)

<Table 3-4> Emotional contagion level of children at risk of emotional behavior according to their home environment (continued)

<표 3-4>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가정환경에 따른 정서전염 수준 (계속) (N=306)

division	n	love		happiness		fear		angry		sadness		all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father final education (N=291)	less than high school	113	4.07	1.07	3.88	1.12	2.78	1.03	3.02	1.06	3.01	1.07	3.35	.81
	college	46	3.94	.97	3.70	1.31	2.92	1.02	3.01	1.10	2.82	.98	3.28	.85
	university	120	3.84	1.00	3.76	1.02	3.01	.98	3.14	.98	2.91	.98	3.33	.79
	more than a graduate	12	3.69	1.28	3.66	1.25	2.88	.79	3.38	.70	2.94	1.20	3.31	.90
	F(Scheffé)		1.17		.42		1.07		.67		.43		.09	
mother final education (N=301)	less than high school ^a	131	3.95	1.09	3.74	1.20	2.69	.99	2.94	1.10	2.86	1.10	3.23	.85
	college ^b	67	3.99	.96	3.75	1.19	3.04	1.03	3.02	1.08	2.91	1.00	3.34	.83
	university ^c	95	3.80	1.06	3.76	.99	3.06	.93	3.23	.90	2.95	.97	3.36	.78
	more than a graduate ^d	8	4.29	.51	4.00	1.00	2.62	1.43	3.16	1.22	2.62	1.31	3.34	.88
	F(Scheffé)		.85		.13		3.44* (c>d)		1.50		.32		.49	
family atmosphere (N=306)	discord ^d	18	3.77	1.26	3.24	1.35	2.74	.94	3.03	.93	2.75	1.12	3.11	.84
	ordinary ^b	125	3.68	1.11	3.61	1.16	2.72	.98	2.90	1.03	2.69	1.02	3.12	.84
	harmony ^c	163	4.12	.92	3.92	1.04	3.02	1.01	3.17	1.05	3.05	1.01	3.46	.77
	F(Scheffé)		6.68** (c,a>b)		4.81** (c,b>a)		3.51* (c>b)		2.46		4.78** (c,a>b)		6.79** (c>b,a)	
	less than 200	56	4.01	1.04	3.81	1.24	2.73	1.07	2.88	1.13	2.84	1.06	3.25	.82
income level (N=306)	200-300	75	3.89	1.08	3.83	1.10	2.81	.97	3.06	1.07	2.95	1.10	3.31	.83
	300-400	64	3.84	1.07	3.68	.95	2.96	1.01	3.16	1.09	2.92	.87	3.31	.78
	400-500	52	3.98	1.07	3.66	1.28	2.87	1.03	3.03	1.02	2.83	.96	3.28	.87
	more than 500	59	3.90	.95	3.77	1.09	3.03	.95	3.11	.90	2.84	1.17	3.33	.83
	F(Scheffé)		.27		.27		.81		.60		.16		.08	
family type (N=306)	big-size ^a	22	4.34	.58	4.18	.75	3.27	1.24	3.57	1.07	3.45	.79	3.76	.64
	small-size ^b	236	3.90	1.04	3.76	1.13	2.91	.97	3.06	1.02	2.90	1.01	3.31	.81
	single-parent ^c	38	3.88	1.01	3.74	1.20	2.79	.90	2.95	1.06	2.71	1.11	3.21	.79
	grandparent ^d	10	3.63	1.63	2.86	1.09	1.53	.63	2.10	.81	1.93	1.10	2.41	.79
	F(Scheffé)		1.52		3.18* (a,b,c>d)		7.72*** (a,b,c>d)		4.88** (a,b,c>d)		5.61** (a,b,c>d)		6.69*** (a,b,c>d)	
children number (N=306)	1	44	3.83	1.09	3.64	1.20	3.06	1.10	3.09	1.12	3.01	1.18	3.33	.98
	2	181	3.97	1.00	3.71	1.06	2.88	.96	3.02	.99	2.83	.99	3.28	.75
	3	75	3.81	1.11	3.86	1.24	2.77	1.03	3.06	1.15	2.92	1.09	3.28	.89
	more than 4	6	4.55	.80	4.61	.38	3.11	1.27	3.44	.58	3.16	.80	3.77	.58
	F(Scheffé)		1.25		1.61		.85		.34		.54		.71	

* p<.05, ** p<.01, *** p<.001

<표 3-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가정환경 변수에 따른 정서전염 수준은 부직업, 모직업, 가정분위기, 가족형태에 따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부직업에 따라 전체 정서전염 수준에 차이를 확인하였다(F=5.32, p<.001). 즉, 부직업 가운데 무직 집단의 정서전염 수준(M=3.89±.57)이 관리직 집단의 수준(M=2.89±1.09)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모직업에 따라 전체 정서전염 수준에 차이를 확인하였다

($F=3.17, p<.01$). 즉, 모직업 가운데 자영업 집단의 정서전염 수준($M=3.82\pm.56$)이 일용직 집단의 수준($M=2.95\pm.90$)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가정분위기에 따라 전체 정서전염 수준에 차이를 확인하였다($F=6.79, p<.01$). 즉, 가정분위기 가운데 화목함 집단의 정서전염 수준($M=3.46\pm.77$)이 불화함 집단의 수준($M=3.11\pm.84$)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형태에 따라 전체 정서전염 수준에 차이를 보였다($F=6.69, p<.001$). 즉, 가족형태 가운데 대가족 집단의 정서전염 수준($M=3.76\pm.64$)이 조손가족 집단의 수준($M=2.41\pm.79$)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학교환경에 따른 정서전염 수준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학교환경 변수별 정서전염 수준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 3-5>와 같다.

<Table 3-5> Emotional contagion level of children at risk of emotional behavior according to their school environment

<표 3-5>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학교환경에 따른 정서전염 수준 (N=306)

division	n	love		happiness		fear		angry		sadness		all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teacher gender	male	50	3.98	1.04	3.69	1.04	3.26	1.02	3.19	1.09	3.09	1.08	3.44	.86
	female	256	3.91	1.04	3.77	1.14	2.81	.99	3.02	1.03	2.84	1.02	3.27	.81
	<i>t</i>		.41		-.47		2.91**		1.02		1.53		1.33	
teacher age	less than 30 ^a	64	3.56	1.28	3.24	1.33	2.58	.96	2.68	.99	2.53	1.06	2.92	.93
	31-40 ^b	96	3.97	.98	3.81	1.04	3.06	.96	3.18	1.04	3.07	.97	3.42	.77
	41-50 ^c	113	4.02	.89	3.84	1.04	2.86	1.07	3.06	1.09	2.91	1.08	3.34	.78
	more than 50 ^d	33	4.13	1.08	4.30	.85	3.00	.90	3.36	.79	2.94	.85	3.54	.67
	<i>F</i> (Scheffé)		3.51* (d,c,b>a)		7.78*** (d,c,b>a)		3.14* (b>a)		4.28** (d,b,c>a)		3.70* (b,d>c,a)		6.68*** (d,b,c>a)	
friend gender	male	157	3.93	.86	3.70	1.11	2.82	.95	2.99	1.01	2.82	1.02	3.25	.75
	female	149	3.91	1.20	3.81	1.14	2.94	1.06	3.12	1.08	2.95	1.05	3.34	.89
	<i>t</i>		.20		-.87		-1.04		-1.06		-1.03		-.97	
activity with friend	do not ^d	18	3.05	1.50	3.00	1.34	2.25	.85	2.92	1.22	2.72	1.42	2.79	1.06
	sometie m ^b	88	3.66	1.17	3.54	1.29	2.66	.97	2.74	1.02	2.55	1.00	3.03	.85
	1-2/ week ^c	62	3.84	.94	3.64	1.04	2.81	.96	2.97	1.00	2.93	.91	3.24	.73
	3-4/ week ^d	77	4.09	.81	3.91	.95	3.05	.96	3.20	.97	2.83	.89	3.41	.66
	everyday ^e	61	4.42	.73	4.22	.87	3.24	1.04	3.43	1.03	3.43	1.05	3.75	.74
	<i>F</i> (Scheffé)		9.50*** (e,d,c>b>a)		6.33*** (e,d,c,b>a)		5.63*** (e,d,c,b>a)		4.71** (e,d,c,a>b)		7.11*** (e,c,d>a,b)		10.10*** (e,d,c>b>a)	

<Table 3-5> Emotional contagion level of children at risk of emotional behavior according to their school environment (continued)

<표 3-5>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학교환경에 따른 정서전염 수준 (계속) (N=306)

division	n	love		happiness		fear		angry		sadness		all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friend number	0 ^a	7	3.85	.71	3.00	.98	2.85	1.21	3.00	.88	2.23	.93	2.99	.80
	1 ^b	56	3.26	1.44	3.14	1.34	2.51	.98	2.61	1.04	2.57	1.06	2.82	.98
	2 ^c	39	3.95	1.02	3.53	1.32	2.80	1.02	2.92	1.14	2.85	1.03	3.21	.89
	3 ^d	36	3.80	.79	3.50	.86	2.78	.98	3.03	.96	2.79	.94	3.18	.61
	4 ^e	31	3.73	1.20	3.45	1.04	2.74	.95	2.66	.96	2.59	1.14	3.03	.82
	5 ^f	39	4.27	.71	4.22	.81	3.01	1.20	3.23	1.23	3.07	.99	3.56	.73
	more than 6 ^g	98	4.26	.70	4.26	.82	3.15	.88	3.42	.85	3.18	.97	3.65	.59
	F(Scheffé)		7.24 ^{***} (f,g,c,a,d>e,b)		10.01 ^{***} (g,f,c,d,e,b>a)		2.91 ^{**} (g,f,a,c,d,e>b)		5.08 ^{***} (g,f,d,a,c,e>b)		3.45 ^{**} (g,f,c,d,e,b>a)		8.97 ^{***} (g,f,c,d,e,a>b)	

* p<.05, ** p<.01, *** p<.001

<표 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학교환경 변수에 따른 정서전염 수준은 교사연령, 친구와의 활동정도, 친구 수에 따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교사연령에 따라 전체 정서전염 수준에 차이를 확인하였다(F=6.68, p<.001). 즉, 교사연령 50세 이상 집단의 정서전염 수준(M=3.54±.67)이 30세 이하 집단의 수준(M=2.92±.93)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친구와의 활동정도에 따라 전체 정서전염 수준에 차이를 보였다(F=10.10, p<.001). 즉, 친구와의 활동정도 가운데 매일함 집단의 정서전염 수준(M=3.75±.74)이 하지 않음 집단의 수준(M=2.79±1.06)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친구 수에 따라 전체 정서전염 수준에 차이를 확인하였다(F=8.97, p<.001). 즉, 친구 수 가운데 6명이상 집단의 정서전염 수준(M=3.65±.59)이 1명 집단의 수준(M=2.82±.98)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미시체계 변수에 따른 공감 수준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공감 수준

다음으로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공감 수준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 3-6>과 같다.

<Table 3-6> Emotional behavioral risk group empathy levels according to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표 3-6>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공감 수준 (N=306)

division		n	emotional empathy		cognitive empathy		social-technical empathy		all	
			M	SD	M	SD	M	SD	M	SD
gender	male	195	2.37	.60	2.60	.57	2.88	.61	2.62	.48
	female	111	2.59	.67	2.65	.55	3.06	.75	2.76	.59
	<i>t</i>			-2.87**		-.68		-2.25*		-2.36*
age	8	37	2.39	.63	2.52	.53	2.80	.66	2.57	.51
	9	32	2.40	.73	2.60	.59	2.98	.70	2.66	.56
	10	74	2.47	.61	2.59	.51	2.95	.68	2.67	.51
	11	55	2.31	.62	2.57	.60	3.02	.66	2.63	.54
	12	56	2.56	.62	2.74	.58	2.92	.68	2.74	.52
	13	52	2.52	.66	2.65	.58	2.95	.67	2.71	.55
	<i>F</i> (Scheffé)			1.04		.83		.52		.52
birth order	only child	44	2.40	.65	2.60	.57	2.84	.70	2.60	.56
	1'st	110	2.44	.70	2.58	.60	2.96	.70	2.62	.66
	2'nd	127	2.46	.62	2.60	.56	3.00	.66	2.69	.50
	3'rd	25	2.46	.50	2.59	.50	2.83	.54	2.63	.41
	<i>F</i> (Scheffé)			.01		.25		1.04		.14
behavior character	internalization ^a	108	2.50	.58	2.62	.47	3.12	.61	2.75	.45
	externalization ^b	119	2.40	.67	2.64	.60	2.87	.66	2.63	.56
	overlap ^c	79	2.46	.67	2.58	.61	2.81	.72	2.62	.56
	<i>F</i> (Scheffé)			.73		.26		5.99** (a,b,>c)		1.86
learning achievement	poor ^a	32	1.88	.64	2.11	.49	2.37	.82	2.12	.56
	less than average ^b	42	2.32	.53	2.38	.49	3.01	.49	2.57	.36
	average ^c	111	2.53	.59	2.62	.53	2.95	.61	2.70	.50
	more than average ^d	76	2.62	.58	2.82	.48	3.09	.62	2.84	.45
	good job ^e	45	2.49	.70	2.86	.56	3.03	.74	2.79	.58
	<i>F</i> (Scheffé)			9.48*** (d,c,e,b>a)		15.18*** (e,d,c>b,a)		7.48*** (d,e,b,c>a)		13.41*** (d,e,c,b>a)

* $p < .05$, ** $p < .01$, *** $p < .001$

<표 3-6>과 같이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공감 수준은 성별과 학업성취도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성별에 따라 전체 공감 수준에 차이를 확인하였다($t = -2.36, p < .05$). 즉, 여자 집단의 공감 수준($M = 2.76 \pm .59$)이 남자 집단의 수준($M = 2.62 \pm .48$)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학업성취도에 따라 전체 공감 수준에 차이를 확인하였다($F = 13.41, p < .001$). 즉, 보통

이상 집단의 공감 수준(M=2.84±.45)이 부진 집단의 수준(M=2.12±.56)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행동특성에 따른 전체 공감 수준에서는 집단 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공감의 하위영역인 사회기술적 공감(F=5.99, p<.01)영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가정환경 변수에 따른 공감 수준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가정환경 변수별 공감 수준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 3-7>과 같다.

<Table 3-7> Emotional behavioral risk group empathy level for children’s parents and family environment

<표 3-7>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부모 및 가정환경에 따른 공감 수준 (N=306)

division	n	emotional empathy		cognitive empathy		social-technical empathy		all		
		M	SD	M	SD	M	SD	M	SD	
father age (N=291)	less than 35	5	2.50	.50	2.54	.49	3.21	.53	2.75	.40
	36-40	56	2.60	.60	2.70	.54	3.04	.59	2.78	.47
	41-45	129	2.39	.67	2.57	.61	2.85	.71	2.60	.58
	46-50	77	2.55	.57	2.69	.51	3.03	.60	2.75	.47
	more than 51	24	2.43	.59	2.51	.53	2.93	.69	2.62	.51
	F(Scheffé)			1.60		1.48		.97		1.45
mother age (N=301)	less than 35	21	2.33	.61	2.45	.61	3.03	.78	2.60	.56
	36-40	111	2.42	.68	2.56	.60	2.88	.72	2.62	.58
	41-45	113	2.51	.63	2.72	.53	3.00	.61	2.75	.50
	46-50	47	2.41	.53	2.55	.48	2.98	.59	2.65	.42
	more than 51	9	2.42	.89	2.74	.60	2.50	.97	2.56	.74
	F(Scheffé)			.55		2.00		1.51		1.03
father job (N=291)	a day ^a	27	2.52	.62	2.54	.48	3.00	.61	2.68	.46
	a business ^b	67	2.40	.68	2.57	.64	3.00	.64	2.66	.55
	self-employed ^c	70	2.64	.53	2.76	.57	2.96	.64	2.79	.50
	officer ^d	68	2.48	.54	2.63	.40	2.91	.54	2.67	.40
	management ^e	32	2.08	.75	2.34	.70	2.68	.95	2.37	.70
	professional ^f	19	2.51	.61	2.72	.54	2.99	.63	2.73	.56
	not employed ^g	8	3.06	.28	2.90	.38	3.47	.52	3.14	.22
F(Scheffé)			4.50 ^{****} (g,c,a,f,d>b,e)		2.63 [*] (g,c,f,d,b,a>e)		1.88		3.57 ^{**} (g,c,f,a,d,b>e)	
mother job (N=301)	a day ^a	12	2.26	.78	2.60	.49	3.07	.73	2.66	.53
	a business ^b	40	2.47	.55	2.70	.48	3.18	.58	2.75	.40
	self-employed ^c	30	2.75	.47	2.84	.47	2.69	.43	2.93	.39
	officer ^d	23	2.34	.67	2.68	.61	2.99	.62	2.57	.54
	management ^e	16	2.21	.83	2.41	.75	3.06	.89	2.53	.74
	professional ^f	28	2.53	.65	2.72	.52	2.85	.64	2.76	.54
	not employed ^g	152	2.42	.64	2.55	.57	2.94	.70	2.61	.55
	F(Scheffé)			1.93		1.86		2.17 [*] (c,a,e,d,g,f<c)		2.09

<Table 3-7> Emotional behavioral risk group empathy level for children's parents and family environment (continued)

<표 3-7>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부모 및 가정환경에 따른 공감 수준 (계속) (N=306)

division		n	emotional empathy		cognitive empathy		social-technical empathy		all	
			M	SD	M	SD	M	SD	M	SD
father final education (N=291)	less than high school	113	2.51	.63	2.60	.58	3.03	.62	2.71	.50
	college	46	2.46	.64	2.61	.58	2.94	.77	2.67	.57
	university	120	2.47	.59	2.64	.52	2.89	.62	2.66	.50
	more than a graduate	12	2.31	.87	2.66	.84	2.83	.91	2.60	.85
	F(Scheffé)			.39		.15		.97		.26
mother final education (N=301)	non-response	5	2.52	.57	2.56	.35	3.18	.53	2.75	.24
	less than high school	131	2.45	.66	2.57	.54	3.00	.63	2.67	.50
	college	67	2.48	.63	2.69	.57	2.96	.75	2.71	.56
	university	95	2.40	.62	2.61	.57	2.81	.67	2.61	.54
	more than a graduate	8	2.62	.67	3.06	.52	3.22	.62	2.96	.59
F(Scheffé)			.42		2.16		1.98		1.23	
family atmosphere (N=306)	discord ^d	18	2.35	.68	2.35	.60	2.84	.84	2.52	.60
	ordinary ^b	125	2.35	.67	2.51	.54	2.87	.73	2.58	.54
	harmony ^c	162	2.54	.60	2.73	.54	3.01	.60	2.76	.50
	F(Scheffé)			3.59* (c>a,b)		7.86*** (c,b>a)		1.59		5.09** (c,b>a)
income level (N=306)	less than 200	56	2.43	.68	2.58	.53	3.00	.80	2.67	.56
	200-300	75	2.52	.63	2.60	.61	2.99	.63	2.71	.52
	300-400	64	2.40	.55	2.60	.54	2.87	.54	2.62	.43
	400-500	52	2.41	.66	2.65	.55	2.88	.72	2.64	.57
	more than 500	59	2.47	.67	2.67	.57	2.97	.68	2.70	.58
F(Scheffé)			.42		.25		.52		.30	
family type (N=306)	big-size ^a	22	2.75	.47	2.76	.61	3.13	.52	2.88	.43
	small-size ^b	236	2.44	.63	2.62	.56	2.90	.66	2.65	.53
	single-parent ^c	38	2.49	.64	2.59	.54	3.15	.70	2.75	.49
	grandparent ^d	10	1.80	.69	2.47	.51	2.70	.94	2.32	.53
F(Scheffé)			5.32** (a,c,b>d)		.72		2.51		2.96* (a,c,b>d)	
children number (N=306)	1	44	2.44	.70	2.67	.52	2.89	.72	2.67	.55
	2	181	2.45	.62	2.62	.57	2.95	.67	2.68	.52
	3	75	2.43	.67	2.55	.56	2.94	.67	2.64	.54
	more than 4	6	2.87	.18	2.87	.60	3.06	.70	2.93	.43
F(Scheffé)			.89		.83		.17		.59	

* p<.05, ** p<.01, *** p<.001

<표 3-7>과 같이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가정환경 변수에 따른 공감 수준은 부직업, 가정분위기, 가족형태에 따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부직업에 따라 전체 공감 수준에 차이를 확인하였다(F=3.57, p<.01). 즉, 무직 집단의 공감 수준(M=3.14±.22)이 관리직 집단의 수준(M=2.37±.70)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가정분위기에 따라 전체 공감 수준에 차이를 확인하였다(F=5.09, p<.01). 즉,

화목함 집단의 공감 수준(M=2.76±.50)이 불화함 집단의 수준(M=2.52±.60)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가족형태에 따라 전체 공감 수준에 차이를 확인하였다(F=2.96, p<.05). 즉, 대가족 집단의 공감 수준(M=2.88±.43)이 조손가족 집단의 수준(M=2.32±.53)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학교환경 변수에 따른 공감 수준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학교환경 변수에 따른 공감 수준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 3-8>과 같다.

<Table 3-8> Emotional behavioral risk group empathy level for children's school environment

<표 3-8>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학교환경에 따른 공감 수준 (N=306)

division		n	emotional empathy		cognitive empathy		social-technical empathy		all	
			M	SD	M	SD	M	SD	M	SD
teacher gender	male	50	2.46	.67	2.54	.57	2.92	.56	2.64	.50
	female	256	2.45	.63	2.63	.56	2.95	.69	2.68	.53
		<i>t</i>	.07		-1.06		-.29		-.46	
teacher age	less than 30 ^a	64	2.21	.68	2.48	.59	2.76	.76	2.48	.59
	31-40 ^b	96	2.48	.60	2.61	.54	2.88	.65	2.66	.50
	41-50 ^c	113	2.50	.64	2.67	.57	3.04	.66	2.74	.52
	more than 50 ^d	33	2.67	.52	2.72	.48	3.13	.52	2.84	.37
	<i>F(Scheffé)</i>			4.68** (d,c,b>a)		2.05		3.46* (d,c,b>a)		4.47** (d,c,b>a)
friend gender	male	157	2.36	.58	2.62	.56	2.84	.62	2.60	.47
	female	149	2.54	.68	2.62	.57	3.05	.71	2.74	.57
		<i>t</i>	-2.54*		-.08		-2.81**		-2.26*	
activity with friend	do not ^a	18	2.17	.81	2.26	.59	2.92	.93	2.45	.72
	sometiem ^b	88	2.27	.71	2.48	.62	2.82	.73	2.52	.59
	1-2/week ^c	62	2.45	.57	2.63	.50	2.97	.62	2.68	.47
	3-4/week ^d	77	2.52	.52	2.69	.50	2.98	.61	2.73	.44
	everyday ^e	61	2.70	.57	2.82	.50	3.04	.62	2.86	.47
	<i>F(Scheffé)</i>			5.38*** (e,d,c,b>a)		5.97*** (e,d,c,b>a)		1.15		4.87** (e,d,c,b>a)
friend number	0 ^a	7	2.19	.62	2.23	.22	2.76	.41	2.40	.32
	1 ^b	56	2.16	.78	2.35	.64	2.63	.88	2.38	.70
	2 ^c	39	2.23	.61	2.44	.52	2.86	.63	2.51	.48
	3 ^d	36	2.34	.57	2.51	.48	2.70	.63	2.52	.43
	4 ^e	31	2.34	.70	2.52	.49	3.24	.58	2.70	.51
	5 ^f	39	2.68	.53	2.85	.53	3.11	.54	2.88	.41
	more than 6 ^g	98	2.70	.46	2.85	.48	3.10	.56	2.88	.39
	<i>F(Scheffé)</i>			7.45*** (g,f,d,e,c,a>b)		8.70*** (g,f,e,d,c,b>a)		5.56*** (e,f,g,c,a,d>b)		9.05*** (g,f,e,d,c,a>b)

* p<.05, ** p<.01, *** p<.001

<표 3-8>과 같이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학교환경에 따른 공감 수준은 교사연령, 친구성별, 친구와의 활동정도, 친구수에 따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교사연령에 따라 전체 공감 수준에 차이를 확인하였다($F=4.47, p<.01$). 즉, 50세 이상 집단의 공감 수준($M=2.84\pm 37$)이 30세 이하 집단의 수준($M=2.48\pm 59$)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친구성별에 따라 전체 공감 수준에 차이를 확인하였다($t=-2.26, p<.05$). 즉, 여자 집단의 공감 수준($M=2.74\pm 57$)이 남자 집단의 수준($M=2.60\pm 47$)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셋째, 친구와의 활동정도에 따라 전체 공감 수준에 차이를 확인하였다($F=4.87, p<.01$). 즉, 매일함 집단의 공감 수준($M=2.86\pm 47$)이 하지않음 집단의 수준($M=2.45\pm 72$)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친구 수에 따라 전체 공감 수준에 차이를 확인하였다($F=9.05, p<.001$). 즉, 6명이상 집단의 공감 수준($M=2.88\pm 39$)이 1명 집단의 수준($M=2.38\pm 70$)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을 분석한 후 미시체계 변수에 따른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도출된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에 비추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은 일반아동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된 장애를 가진 아동이 상대방의 얼굴표정 모방과 감정 인식에 있어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10, 14]와는 유사한 결과이며, 정서장애를 가진 경우 매우 높은 정서전염 수준을 보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16, 54]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또한, 정서·행동의 문제를 가진 아동은 타인의 관점 이해가 힘들어 공감에 취약함을 가진다는 선행 연구[6, 11, 14]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가 특정 행동 문제를 가진 정서·행동장애 소수의 아동에게 실시된 질적 연구가 아닌 다양한 행동특성을 가진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에게 실시된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서전염과 공감수준을 분석한 것으로 정서전염과 공감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직접관찰이나 면담 등의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함께 사용하여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의 정서전염 및 공감수준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서전염 수준이 높으면 감정을 평이하게 유지하지 못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게 되고[49, 70, 79], 정서전염 수준이 심하게 낮아도 타인의 정서에 냉담하여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에 처한다고 알려져 있다[2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행히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보통 이상의 정서전염 수준을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공감수준도 일반아동 보다는 다소 낮으나 보통 이상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아동의 정서전염과 공감능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및 사회성

기술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들의 사회적 역량을 촉진한다면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표현에 관심을 가지고 아동의 공감적인 태도를 격려하고, 타인의 관점 이해하기, 상황에 맞는 공감적 태도 익히기 등의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변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정서전염 하위영역별 수준을 살펴보면, ‘사랑, 행복’에 대한 정서전염이 ‘두려움, 분노, 슬픔’에 대한 정서전염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아동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43, 58, 69]의 부정적 감정에 비해 긍정적 감정에 더 높은 정서전염을 보인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정서전염의 양상이 일반아동이나 청소년들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나 정서는 문제행동에 대한 처벌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둔감하게 반응하였거나[69],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과 비해 변별이 쉬워 높은 정서전염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43]. 이에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정서적 지원해 나갈 때 칭찬과 격려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 제공을 통해 아동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공감수준은 3가지 하위영역에서 모두 보통 이상을 보였는데, 정서적 공감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 인지적 공감, 사회기술적 공감 순이었다. 이는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경우 인지적 공감에 비해 정서적 공감이 낮다는 선행연구[5, 50]와 유사한 결과로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이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데 취약함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서적 공감은 상대방의 정서 상태를 공유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으로[5, 81] 친사회적 능력을 가지는데 기초가 되는 기제로 알려져 있다[11, 22, 49].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정서적 공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에 개발되어 지원되고 있는 공감프로그램들은 정서적 공감은 중요성은 간과한 채 인지 및 사회기술적 공감의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49]. 이에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이 다양한 감정이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여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정서 인식 및 표현 능력 향상하기[11]등과 같은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공감이 우선적으로 고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서적 공감의 촉진은 인지적, 사회기술적 공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공감능력을 더욱 발달시켜 나갈 것이다.

둘째,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 개인적인 특성 변수에 따른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가 보통 이상의 집단이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이 높았고, 여아가 남아보다 공감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공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62, 69]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은 공감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1, 35, 71, 9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 외 선행연구[30, 45, 76, 86]에서도 학업성취도와 정서적인 능력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학업성취도에 따라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의 차이를 보인 것은 이들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정서전염과 공감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남아에게는 정서적 통제를 강조하고, 여아에게는 정서적 표현을 격려하므로 남아에 비해 여아가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부모 및 가정환경 특성 변수에 따른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을 살펴보면, 부직업, 모직업, 가정분위기, 가족형태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직업에서 무직 집단이 관리직 집단에 비해 높은 정서전염과 공감수준을 보였고, 모직업에서는 자영업 집단이 일용직 집단에 비해 정서전염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분위기와 가족형태에서 화목하지 않은 가족분위기와 조손가족이 가장 낮은 정서전염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은 부모와의 다양한 상호작용 및 소통과정을 통해서 가족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정서를 느끼게 되므로[39],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고 타인의 사고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화목한 가족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일깨워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취약한 사회적 관계망 등으로 인해 자녀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44, 84], 부정적 가정환경과 부모의 부재도 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38, 57]. 조부모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와 같은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일관된 훈육을 유지하지 못해 조손가족의 아동이 더 많은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질 수 있고[61, 88]. 부모의 사망과 이혼, 가출 등도 주양육자 부재로 이어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31]에서 화목하지 않은 가족분위기와 조손가족이 낮은 정서전염을 보인 이유를 고찰해 볼 수 있다. 이에 교사나 전문가가는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아동의 가정환경과 가족구성원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학교환경 변수에 따른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에서는 교사연령, 단짝 친구 성별, 친구와의 활동정도, 친구 수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먼저 교사와 관련된 변수에서는 교사 연령 50세 이상 집단의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이 30세 이하 집단의 수준보다 높았다. 이는 오랜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높은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조절능력을 토대로 주변과의 상호작용에 보다 능숙하고 편안하게 임함으로써 [68] 아동의 정서적인 부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교사의 긍정적 정서는 아동에 대한 기대감이나 행동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며 이러한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의 정서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48]. 또한 오랜 경력을 가진 교사는 여러 교육적 접근을 계획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33], 아동 중심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으므로[31], 학교환경에서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정서전염과 공감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친구와 관련된 변수에서는 친구와의 활동을 매일하는 집단과 친구수가 6명 이상 집단에서 정서전염과 공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단짝 친구가 여자인 경우 공감 수준이 높았다. 보통 친구관계는 친구와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와 친구 유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친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으로 살펴 볼 수 있는데[55, 89], 친구관계가 활발한 아동은 사회적으로 유능하여 더 친절하고 협동적이며, 높은 수준의 공감능력을 가졌다는 선행연구들의 보고[21, 55]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와 함께 여아가 남아보다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므로 친구에게 더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7]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원만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사고나 느낌, 행동을 잘 판단하여 적절히 반응하는 공감능이 발달해야 한다는 선행연구[42, 73] 결과와 교사와 친구는 아동의 정서적 반응에 중요한 모델이 된다[2]는 점을 학교현장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이 학교환경에서 긍정적이고, 폭넓은 교사, 친구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을 지원함에 있어 먼저 아동에게 주변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기본적인 정서전염과 공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이 일상 속에서 정서전염과 공감적인 태도를 적절하게 발휘하며 주변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서 및 사회적 기술이나 태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정서전염과 공감에 대한 수준을 살펴보고 미시체계 변수에 따라 아동의 정서전염과 공감의 차이를 알아보는 조사 연구에 머물렀으나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주변 체계와의 상호작용과 그 양상에 관련된 추후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토대로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서전염과 공감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이 가지는 행동특성 혹은 문제행동 유형에 따른 정서적 특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후 연구 통해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가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주변과의 상호작용에서 정서전염과 공감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도록 미시체계 차원에서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Aguilar, B., Sroufe, L. A., Egeland, B., & Carlson, E. (2000). Distinguishing the life-course persistent and adolescent-limited antisocial behavior types: From birth to 16 yea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2), 109-132.
- [2] Ahn, H. J. (2005). Child Care Teachers use of Emotional Narrative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9*(1), 217-238
- [3] Auyeung, B., Wheelwright, S., Allison, C., Atkinson, M., Samarawickrema, N., & Baron-Cohen, S., (2009). The children's empathy quotient and systemizing quotient: Sex difference in typical development and in autism spectrum condition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9*(11), 1509-1521.
- [4] Baron-Cohen, S., & Wheelwright, S. (2004).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 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4*(2), 163-175.
- [5] Blair, R. J. R. (2005). Responding to the emotions of others: Dissociating forms of empathy through the study of typical and psychiatric populations.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4*(4), 698-718.

- [6] Braaten, E. B., & Rosen, L. A. (2000). Self-regulation of affect in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 and non-ADHD boys: differences in empathic respond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2), 313.
- [7] Brendgen, M., Markiewicz, D., Doyle, A. B., & Bukowski, W. M. (2001). The relations between friendship quality, ranked- friendship preference, and adolescents' behavior with their friends. *Merril-Palmer Quarterly, 47*(3), 395-415.
- [8] Bronfenbrenner (1992).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이영(역). 인간발달생태학. 서울: 교육과학사.
- [9] Carrillo, M., Migliorati, F., Bruls, R., Han, Y., Heinemans, M., Pruis, L., Gazzola, V., & Keysers, C. (2015). Repeated witnessing of Conspecifics in pain: Effects on emotional contagion. *PloS One, 10*(9), e0136979. DOI: 10.1371/journal.pone.0136979.
- [10] Casey, R. J. (1996). Emo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with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disorders. In M. Lewis & M. W. Sullivan (Eds.), *Emotional development in atypical children* (pp. 161-183).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11] Choi, J. H. (2017). The effects of facial expression mimicry on empathy for the bullied and permissive attitude toward bullying i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12] Christakis, N. A., & Fowler, J. H. (2010). *Connected*. 이충호 (역). 행복은 전염된다. 경기도: 김영사
- [13] Davis, T. (1996). Gender differences in masking negative emotions; Ability or motivation?. *Development Psychology, 31*(4), 660-667.
- [14] De Wied, M., Van Boxtel, A., Zaalberg, R., Goudena, P., & Matthy, W. (2006). Facial EMG response to dynamic emotional facial expressions in boys with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Journal of Psychiatry Research, 40*(2), 112-121.
- [15] Decety, J., & Lamm, C. (2006). Human empathy through the lens of social neuroscie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5*(2), 54-58.
- [16] Doherty, R. W. (1997). The emotional contagion scale: A measure of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1*(2), 131-154.
- [17] Doherty, R. W., Orimoto, L., Singelis, T. M., Hatfield, E., & Hebb, J., (1995). Emotional contagion: Gender and occupational differenc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3), 468-476.
- [18] Dunsmore, J. C., & Karn, M. A. (2004). The influence of peer relationships and maternal socialization on kindergartners' developing emotion knowledg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5*(1), 39-56.
- [19] Eisenberg, N. (2007). Empathy-related responding and prosocial behaviour. *In Novartis Found Symp, 278*, 71-80.
- [20] Emond, A., Ormel, J., Veenstra, R., & Oldehinkel, A. J. (2007). Preschool behavioral and social-cognitive problems as predictors of (pre)adolescent disruptive behavior.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8*(3), 221-236.
- [21] Findlay, L. C., Girardi, A., & Coplan, R. J. (2006). Links between empathy, social behavior, and social understanding in early childhoo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3), 347-359.
- [22] Fiori, M. (2009). A new look at emotional intelligence: A dual-process framework.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3*(1), 21-44.

- [23] Flick, G. L. (2011). *Understanding and Managing Emotional and Behavior Disorders in the Classroom*.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 [24] Gohm, C. L. (2003). Mood regul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594-607.
- [25] Gresham, F. M., Van, M. B., & Cook, C. R. (2006). Social skill straining for teaching replacement behavior: Remediating acquisition deficits in at-risk students. *Behavioral Disorders*, 31(4), 363-377.
- [26] Ha, E. H., & Cho, Y. J. (2007). Intrapersonal Moderating Variables on the Influence of Peer Conformity to the Bullying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4(4) and 49-64.
- [27] Hatfield, E., Cacioppo, J. T., & Rapson, R. L. (1994). *Emotional Contagion*. London,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8] Hong, H. J. (2008). Empathy deficits in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s Hyperactivity Disorder.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 [29] Ickes, W. (2008). *Everyday Mindreading*. 권석만(역). 마음읽기. 서울: 중앙 P & L.
- [30] Izard C. E., Fine S. E., Schultz D., Mostow A. J., Ackerman B. P., & Youngstrom E. A. (2001). Emotion knowledge as a predictor of social behavior and academic competence in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Science*, 12(1), 18-23.
- [31] Jang, S. O., & Kwon, E. J. (2010). Problems and interventions for the family living in the care of grandparents. *The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29(1), 351-37.
- [32] Jang, W. Y. (2016). The Empathy of Children with ADHD and the Application Effects of the Empathy Program. Doctoral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 [33] Jeon, H. Y., Yoo, M. H., Hong, H. G., & Park, E. E. (2009). Study on Teaching Anxiety and Effects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of Beginning Secondary Science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29(1), 69-78.
- [34] Ji J. S. (2013). (The) Effects of Delinquency, Callous · Unemotional Traits, and Depression on Juvenile Risk-taking.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 [35] Jolliffe, D., & Farrington, D. P.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asic empathy scale. *Journal of Adolescence*, 29(4), 589-611.
- [36] Jones, V., Dohrn, E., & Dunn, C. (2004). *Creative effective programs for student with emotional and behavior disorders*. Boston: Allyn & Bacon.
- [37] Joo, H. H. (2007). Parental Divorce and Their Children's Adjustment: Focusing on Parent-children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as a mediator.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1), 107-136.
- [38] Ju, S. H. (2007). Parental Divorce and Their Children's Adjustment: Focusing on Parent-children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as a mediator.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 107-136.
- [39] Jung, H. S. (2009). The Effects of Family Climate, Peer Support and Self-esteem on Child's Self-regulation: The Examination of Path Model.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40] Jung, M. A. (2012). Parents' perception and need for their supporting family about communities business to prevent elementary school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41] Jung, S. K., & Hwang, M. Y. (2009). Relationships of Instructional Approaches to View of Knowledge and Teacher-Efficacy in Elementary Teacher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2*(3) and 43-63
- [42] Kang, J. Y. (2009).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peers and class teachers depending on empathy level of primary school children. Master's thesis, J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43] Kim, E. H. (2015). (The) relationships between facial recognition of emotion, peer relationship and social anxiety of school-aged children.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44] Kim, E. J. (2007). A Study on the Social 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Extra tutoring fe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ducational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1*(5), 134-162.
- [45] Kim, E. J. (2013). The influence of emotional regul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academic emotions and learning strategies. Doctoral thesis, Kyung Hee University.
- [46] Kim, E. J. (2015). Effects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Using SNS Feedback on Empathy Competence and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at Risk for Emotional Behavioral Disorder and Their Typically Developing Peer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47] Kim, E. K., Do, H. S., & Park, B. K. (2007). Social Competence: Its Relationship to Parents' Attitudes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and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3), 115-131.
- [48] Kim, E. M. (2012). An Analysis of Ecological Variations Influencing on the Adapt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49] Kim, H. J. (2015).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mpathy in Adults with ADHD Tendency: Using Emotional Priming.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50] Kim, H. R. (2013). Differences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by participant roles in bullying among 5th and 6th grade Korean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6*(4), 1-20.
- [51] Kim, J. E. (2015). Cognitive and emotional empathy in adolescent ADHD: An fMRI study. Doctoral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52] Kim, J. S., & Kim, W. S. (2007). Emotional Contagion as an Eliciting Factor of Altruistic Behavior: Moderating Effects by Culture. *The Korean Journal of Consultation and Psychotherapy Psychology, 13*(2), 55-76.
- [53] Kim, M. A. (2014). An Examination of Dual-Pathway Model about Binge Eating: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Interoceptive Awareness and Emotional Eating and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Contagion. Doctoral thesis, Inche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54] Kim, M. A., & Lee, J. Y. (2013). Understanding and Applying in the Counseling Process on the Emotional Contag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2), 1067-1092.
- [55] Kim, M. S. (2007). (The) Effects of Empathy on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of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 [56] Kim, M. Y. (2009). The Effects of a Forgiveness Counseling Program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giveness Levels, Anger Manage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Master's thesis,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57] Kim, S. A. (2011). Trajectories of Change in Aggression and Internalizing Problems and Effects of Early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 of Divorce: A Comparison with Married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3), 1-30.
- [58] Kimura, M., Daibo, I., & Yogo, M. (2008). The study of emotion contag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6(1), 27-42.
- [59] Lee, H. J. (1994). children's perception of the quality of their best friendship.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60] Lee, H. R. (2012).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parent training program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 for children with disruptive behavior problems. Doctoral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61] Lee, J. M. (2012). A Study on Relations between Self-esteem, Empathy, and Self-regulation of Children Based on Home Environment.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 [62] Lee, K. M. (2008). The empathetic nature of children and the effect of their academic efficacy on academic performance.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63] Lee, K. S. (2014). A study on empathy, emotion recognition and callous-unemotional traits of juveniles and autism spectrum disorder adolescents. Doctoral thesis, Taegu University.
- [64] Lee, M. J. (2003). (The) 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of families and the emo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 [65] Lee, O. H. (2010). The Effects of Empathic and Social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School lif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66] Lee, S. B. (2009). Assessing Current Status Analysis of Developing Family Support Program for Developmental Delayed Young Children -A Focus on Young Children with Behavioral Concern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5(3) and 381-401.
- [67] Lee, S. H. (2012). A Study on the Support System for Students with Emotional and/or Behavioral Disorder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8(1), 1-24.
- [68] Lee, Y. Y., Noh, J. S., Yoon, Y. S., & Jeon, E. H. (2011). The Relationship among Optimism, Emotional Regul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Primary School Teachers.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mind science*,
- [69] Lim, Y. K. (2010). The sensitivity in recognition of facial emotions : A comparison with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adolesc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70] Omdahl, B. L. & O'Donnell, C. (1999). Emotional contagion, empathic concern and communicative responsiveness as variables affecting nurses' stress and occup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9(6), 1351-1359.
- [71] Park, E. H., Kim, H. R., Cho, K. J., & Koo, J. S. (2009).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izing and systemizing. *The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14(2), 269-286.
- [72] Park, I. S. (2014). The effects of mindfulness-based mind control program on emotional stability and self-regul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t risk for EBD and their typically developing peers in an inclusive clas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73] Park, J. S. (2010). (The) relationships among fifth graders' empathy, peer relationship, and self-regulation.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 [74] Pearce, L. R. (2009). Helping children with emotional difficulties: A response to intervention investigation. *The Rural Educator, 30*(2), 34-46.
- [75] Pianta, R. C., & Steinberg, M. (1992).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he process of adjustment to school.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57*, 61-80.
- [76] Schutz, P. A., & Lanehart, S. L. (2002). Introduction ; *Emotions in educ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37*(2), 67-68.
- [77] Seo, J. Y. (200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empathy and emotion regulation.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78] Shamay-Tsoory, S. G., Aharon-Peretz, J., & Perry, D. (2009). Two systems for empathy: A double dissociation between emotional and cognitive empathy in inferior frontal gyrus versus ventro medial prefrontal lesions. *Brain, 132*(3), 617-627.
- [79] Siebert, D. C., Siebert, C. F. & Taylor-McLaughlin, A. (2007). Susceptibility to emotional contagion: Its measurement and importance to social work.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3*(3), 47-56.
- [80] Singer, T., & Lamm, C. (2009). The social neuroscience of empathy.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156*(1), 81-96.
- [81] Smith, A. (2006). Cognitive empathy and emotional empathy in human behavior and evolution. *Psychological Record, 56*(1), 3-21.
- [82] Sonnby-borgström, M., Jönsson, P & Svensson, O. (2008). Gender differences in facial imitation and verbally reported emotional contagion from spontaneous to emotionally regulated processing level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9*(2), 111-122.
- [83] Sourander, A., & Helstelä, L. (2005). Childhood predictors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4*(8), 415-423.
- [84] Vandewater, E. A., & Lansford, J. E. (2005). A family process model of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1), 100-109.
- [85] Won, Y. M., Park, H. W., & Lee, K. O. (2004). Children's Temperament and Home Environment in Relation to Behavior Problems: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Chinese and Korean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4*(2), 311-334.
- [86] Yang, M. H. (2009). Emotion as moderator on the relations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academic outcom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3*(1), 51-71.
- [87] Yang, S. I.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home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 [88] Yang, S. Y. (2009). Influence of the Kinship Foster Family's Psychological Nurturing Circumstances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6*, 193-224.
- [89] Yoo, M. S. (2016).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90] Yoo, Y. K. (2013). The effects of children's empathy ability on the prosocial behavior according to gender.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